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기부태도 사이에서 기부동기의 매개효과

이창식¹, 장하영^{2*}

¹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²한서대학교 평생교육학과

Mediating Effect of Donation Motivation between Self-esteem and Donation Attitude of Adolescents

Chang-Seek Lee¹, Ha-Young Jang^{2*}

¹Dept. of Health, Counseling and Welfare, Hanseo University

²Dept. of Child and Elderly Welfare, Han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기부태도 사이에서 기부동기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 4개 시, 군에서 청소년 879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은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기부태도의 차이검정, 주요변인 간의 상관분석,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태도는 성별과 학교급 및 종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과 기부동기 및 기부태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과 기부태도 사이에서 내재적 기부동기와 외재적 기부동기 모두 부분매개하였다. 끝으로 청소년들의 기부태도와 기부행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자아존중감, 기부동기, 기부태도, 청소년,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ediating effect of donation motivation between self-esteem and donation attitude of adolescents. For this purpose, 879 adolescents were surveyed in 4 cities and counties in the northwestern part of Chungcheongnamdo.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by T-test and ANOVA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donation attitud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by correlation analysis of main variables. Also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and it was verified by Sobel test.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onation attitudes differed according to gender, school level, and religion. Second,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donation motivation and donation attitude. Third,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both intrinsic donation motivation and external donation motivation were partially mediated between self-esteem and donation attitude. Finally, policies to increase donation attitude and donation behavior were discussed.

Key Words : Self-esteem, Donation motivation, Donation attitude, Adolescent, Mediating effect

1. 서론

청소년의 기부 행위란 청소년 스스로가 육체적, 정신

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타인 및 사회를 위하여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1]. 이러한 기

*Corresponding Author : Ha-Young Jang(besof@hanmail.net)

Received April 11, 2018

Accepted June 20, 2018

Revised May 23, 2018

Published June 28, 2018

부 행위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재능과 소질을 발견할 수 있고, 공동체 생활을 체험하는 수련활동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따라서 기부는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와 사회 변화에 참여하는 과정이자 시민의식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되며, 다양한 사회 성원들과 신뢰를 구축하여 사회적 가치와 자본을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3].

청소년들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향후 기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잠재적 기부자이며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주된 관심의 대상이다[4].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기부에 대한 인식이 낮고 필요성을 갖고 있지 못하며, 상급 학교 진학의 일환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5].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기부 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기부 활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기부에 관한 진정한 가치를 인지하고 잠재적 기부자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들의 요인을 다양하게 세분한 기부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6].

기부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기부행위의 예측변인으로서 기부태도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는데 기부태도와 기부행위는 매우 밀접한 것으로 밝혀졌다[4, 7]. 태도란 대상과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험으로부터 조직된 개인의 반응이다[8].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이고 역동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신경적 준비상태로서, 특정 대상과 상황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므로 기부태도는 기부행위의 대표적 유형이라 할 수 있는 물질적 기부경험 및 기부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9], 기부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지속적인 기부행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한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부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의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및 평가 정도를 의미하는데[11],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심리 변수이다. 자아존중감은 주로 교육, 건강 및 사회 적용 분야에서 친사회적인 태도와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주요한 변인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12]. 하지만 개인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선, 봉사 및 기부 등의 행위를 다룬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기부 대상을 결정하는 등 이타적 행동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3]. Burton 등[14]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자선 광고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자선 행동에 더 호의적임을 밝혀내었다. Smith의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의 가나에서 2년 동안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이 자아존중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과 기부태도의 관계는 입증되었다[4, 재인용].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본다면 자아존중감은 기부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기부태도 뿐만 아니라 기부동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동기란 ‘기부를 생각하게 하고 기부 행위를 촉진시키는 심리’로 정의되는데, 귀인(attribution)에 따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된다[4]. 내재적 기부동기란 보상에 대한 기대감 없이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 자체로 행해지게 되는 친사회적 동기이며[15], 외재적 기부동기란 자신의 사회적 위신 및 지위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기부 행위를 하게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16]. Dawson은 기부 동기를 4가지로 구분하면서 그 중 하나로 자아존중감을 제시하였다[17].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부 동기가 높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기부동기와 기부 행동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핵심적인 동기임을 밝혀내었다[18].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본다면 자아존중감은 기부태도 뿐만 아니라 기부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기부동기와 기부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기부동기는 기부태도의 주요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내재적 기부동기일 경우 도덕적 의무 관점에서 기부 태도 및 기부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15], 외재적 기부동기는 세제혜택 등 비용의 시각에서 설명하여 직접적으로 기부태도를 결정하게 된다[19]. 이러한 기부동기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부태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16]. 하지만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세제혜택은 기부행동과는 상관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이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20].

상술한 일련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아존중감은 기부동기 및 기부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부동기는 기부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

인된다. 그러므로 기부동기는 자아존중감과 기부태도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기부 관련 심리와 기부 행동 간의 직접적인 효과에만 관심을 두었고 매개효과, 특히 기부동기의 매개효과를 밝혔던 연구는 전무하였다. 더군다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던 연구가 대다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던 연구는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존중감이 기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부동기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연구목적에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부태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자아존중감, 기부동기 및 기부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자아존중감과 기부태도의 관계에서 기부동기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직까지 부족한 청소년의 기부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함의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 D시, S시, H군 및 T군 지역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동의를 구한 후 실시되었다. 총 응답자는 901명이었으나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공란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879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393명(44.7%), 여학생이 486명(55.3%)으로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학교급 분포는 중학생이 399명(45.4%), 고등학생이 480명(54.6%)으로 고등학생이 많았다. 이들의 연령 범위는 13세에서 19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16.56±1.39세였다. 종교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275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가 87명(9.9%), 천주교가 46명(5.2%), 기타가 20명(2.3%) 순이었고 무종교는 451명(51.3%)이었다. 거주지역은 도시가 259명(29.5%), 농촌이 620명(70.5%)으로 농촌이 많았다. 끝으로 이들의 용돈은 '5만원 미만'이 666명(75.8%), '5만원 이상'이 213명(24.2%)으로 '5만원 미만'이 월등히 많았다.

2.2 연구도구

2.2.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1]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5개의 긍정적인 문항, 5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 척도이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였고,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89로 나타났다.

2.2.2 기부동기

내재적 기부동기는 하회정[21]이 개발하고 김미숙[4]이 보완한 척도를 관련 전문가 1인의 검토를 거쳐 본 연구 대상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답항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총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기부 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58로 나타났다.

외재적 기부동기는 조휘일[22]이 개발하고 유수진[9]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본 연구 대상에 적합한 5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답항의 범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총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신이나 지위 또는 이에 대한 다른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7로 나타났다.

2.2.3 기부태도

기부태도는 Salamon[23]이 개발하였고 유수진[9]과 하회정[21]이 수정한 척도 중 본 연구대상에 적합한 5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의 범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총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부에 대한 인식과 기부 행동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09로 나타났다.

2.2.4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 학교급, 거주지역, 종교, 용돈을 조사하였다.

2.3 자료분석

설문지를 코딩한 후 SPSS Win. 2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부태도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Duncan/Dunnett T3로 사후검정 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기부동기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Baron과 Kenny[24]의 분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obel's test[25]로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부태도 차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부태도는 Table 1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기부태도가 유의하게 높았고($t=-3.180, p<.01$), 학교급에 따라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429, P<.05$).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도 기부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6.750, p<.001$), '불교'가 '천주교 및 기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용돈에 따라서는 기부태도에 차이가 없었고($t=1.551, p=.121$),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도시'와 '농촌'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34, p=.973$).

3.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아존중감과 내재적 기부동기, 내재적 기부동기 및 기부태

도 모든 변인들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특히, 외재적 기부동기와 기부태도가 가장 높은 상관($r=.625, p<.01$)을 보였고, 다음으로 외재적 기부동기와 내재적 기부동기($r=.390, p<.01$), 내재적 기부동기와 기부태도($r=.268, p<.01$) 순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상관계수는 .073~.625의 범위를 보여, 주요 변인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이러한 변인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외재적 기부동기가 $3.70\pm.70$ 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기부태도는 $3.43\pm.54$, 자아존중감은 $3.27\pm.56$, 내재적 기부동기는 $2.89\pm.53$ 이었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1.	2.	3.	4.
1. Self-esteem		1			
Donation motivation	2. Internal	.073*	1		
	3. External	.156**	.390**	1	
4. Donation attitude		.214**	.268**	.625**	1
Mean		3.27	2.89	3.70	3.43
SD		.56	.53	.70	.54

* $p<.05$, ** $P<.01$

3.3 자아존중감과 기부태도 사이에서 기부동기의 매개효과

연구대상의 자아존중감과 기부태도 사이에서 기부동기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의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Table 1. Differences i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and happin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Donation attitude		
		N.	Mean (SD)	t, F (Duncan)
Gender	Male	393	3.36(.55)	-3.160**
	Female	486	3.48(.52)	
School level	Middle school	399	3.38(.53)	-2.429*
	High school	480	3.47(.54)	
Religion	Protestant	275	3.50(.51)	6.750***
	Buddhism	87	3.58(.51)	
	Catholic, etc	66	3.29(.58)	
	No religion	451	3.38(.54)	
Pocket money	Less 50000 Won/Month	666	3.45(.53)	1.551 (p=.121)
	Upper 50000 Won/Month	213	3.38(.54)	
Region	City	259	3.43(.58)	.034 (p=.973)
	Country	620	3.43(.52)	

* $p<.05$ ** $p<.01$ *** $p<.001$

<N=898>

3.3.1 내재적 기부동기의 매개효과

Table 3와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 경로가 1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내재적 기부동기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4.696, p<.05), 2단계에서도 자아존중감이 기부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F=42.205, p<.001). 3단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내재적 기부동기를 동시에 투입 시 이들 두 변수는 기부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F=54.067, p<.001), 3단계 자아존중감의 표준화 계수(β) 값이 2단계의 .214에서 .196으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기부태도의 관계에서 내재적 기부동기의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 결과(Z=7.764, p<.00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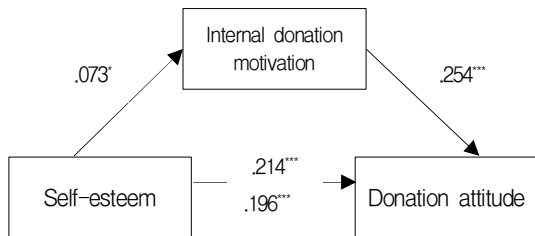


Fig. 1.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internal donation motivation, and donation attitude of adolescents

3.3.2 외재적 기부동기의 매개효과

Table 3와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 경로가 1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외재적 기부동기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21.820, p<.001), 2단계에서도 자아존중감이 기부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F=42.205, p<.001). 3단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외재적 기부동기를 동시에 투입 시 이들 두 변수는 기부태도를 유

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F=298.139, p<.001), 3단계 자아존중감의 표준화 계수(β) 값이 2단계의 .214에서 .120으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기부태도의 관계에서 외재적 기부동기의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 결과(Z=4.620, p<.00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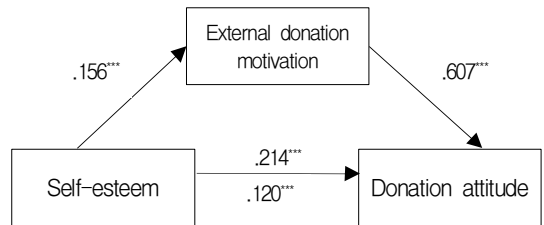


Fig. 2.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xternal donation motivation, and donation attitude of adolescents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불교가 천주교 및 기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용돈과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른 선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3, 4]. 우선 성별에 따른 기부태도의 차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자기 희생적이고 양육적이라는 이타주의 이론으로 해석이 가능하대[26].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은 이유로 자아존중감의 성장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부모에 대한 의존적인

Table 3.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s

	IV	DV	B	SE	β	R ²	F	Sobel's test
Internal Donation Motivation	Self-esteem	Internal motivation	.069	.032	.073*	.005	4.696*	7.674***
	Self-esteem	Donation attitude	.205	.032	.214***	.046	42.205***	
	Self-esteem Internal motivation	Donation attitude	.187 .257	.031 .032	.196*** .254***	.110	54.067***	
External Donation Motivation	Self-esteem	External motivation	.193	.041	.156***	.024	21.820***	4.620***
	Self-esteem	Donation attitude	.205	.032	.214***	.046	42.205***	
	Self-esteem External motivation	Donation attitude	.114 .467	.025 .020	.120*** .607***	.405	298.139***	

*p<.05, **p<.01, ***p<.001

태도와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다[1]. 이와 같은 가치관은 연령에 비례하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가치, 기부태도에 긍정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한편, 종교에 따른 기부태도의 차이는 다른 선행연구들과 차이를 보인다. 김유나[19]의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종교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9]. 그 반면 종교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7]. 따라서 종교에 따른 기부태도의 차이는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 및 시기 등 다양한 변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내재적 기부동기, 외재적 기부동기 및 기부태도는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기부동기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외재적 기부동기가 기부태도와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기부태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재적 기부동기를 가장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선행연구와도 모두 일치한다[4, 28].

셋째, 회귀분석 결과 내재적 기부동기와 외재적 기부동기 모두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기부태도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부동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기 어려운데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기부동기 향상 교육 및 방안은 매우 유의할 수 있다. 특히 내재적 기부동기와 외재적 기부동기 모두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기부 교육은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타인을 위하여 베풀고 봉사하겠다는 내면적인 만족과 보람을 찾는 내재적 동기와 타인들에게 인정받고 잠재적 수혜를 기대하는 외재적 동기에 의해 기부태도는 강화된다[17]. 그러므로 내재적 기부동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체, 나눔 교육 등이 필요하겠고 외재적 기부동기를 높이기 위하여 학점 인정 등의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한 집단으로만 파악하여 이루어졌으나 성별, 학교급에 따라 기부태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기부동기의 매개효과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집단을 성별, 학교급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충남의 일부 지역 청소년에 한정하였다. 지역적 특수성 문제로 본 연구대상들이 전국의 학생들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표집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설명력을 고려하였을 때 자아존중감과 기부태도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 변수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후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다른 매개변수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존감과 기부태도 사이에서의 기부동기의 매개효과를 밝힌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청소년들의 기부태도를 높이는 데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연구적 함의가 있다.

REFERENCES

- [1] B. K. Kim. (2015).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Donation Behavior of Teen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 [2] J. Ulziibayar. (2011).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 the Persistence of Adolescents' Volunteer Activ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ngkyoul University, Kyunggi.
- [3] C. S. Lee & K. B. Song. (2013). A Study on the Donations and Related Variables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12), 725-734. DOI: 10.14400/JDPM.2013.11.12.725
- [4] M. S. Kim. (2013). *A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with Adolescents' Donation Motive and Attitude toward Donation*. Unpublished Doctoral thesis. Hanseo University, Chungnam.
- [5] E. Y. Na. (2016). *Study for the Influence Caus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Message Framing of Public Service Campaign and Self-Efficacy on the Donation Intent of Teen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gang University, Seoul.
- [6] Y. Y. Hwang, M. J. Oh & J. C. Jeong. (2013). A Comparative Study on Donation Intention Between Young and Senior Generations: The Moderating Role of Psychological Distance and Moral Identity. *Korean Management Review*, 42(6), 1715-1736.
- [7] H. J. Ha. (2004).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Individual Donation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ju University, Chungbuk.

[8] G. W. Allport. (1935). *A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MA: Clark University Press.

[9] S. J. You. (2001).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hilanthropy: Focusing on Seoul Citize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onsei University, Seoul.

[10] M. H. Ryou. (2015). A Study on Adolescent Consumer' Donation Attitude and Donation Inten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3(6), 97-113.

[11]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2] S. J. Lee. (2013). Impact of Self-esteem and Message Framing on Responses toward the International Relief Campaig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7(5), 56-77.

[13] R. Bennett. (2003). Factors Underlying the Inclination to Donate to Particular Types of Cha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8(1), 12-29. DOI: 10.1002/nvsm.198

[14] K. A. Burton, J. S. Gore & J. Sturgeon. (2012). The Role of Relational Self-construal in Reactions to Charity Advertisements. *Self and Identity*, 11(3), 343-359. DOI: 10.1080/15298868.2011.583529

[15] J. A. Piliavin, & H. Chamg. (1990). Altruism: A Review of Recent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1), 27-65.

[16] G. Glenday, A. K. Gupta, & P. Pawlak. (1986). Tax Incentives for Personal Charitable Contribu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8(4), 688-693. DOI: 10.2307/1924530

[17] H. S. Kim. (2009).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constant donation Inten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nam University, Jeonbuk.

[18] A. R. Andreasen & P. Kotler. (2007). *Strategic Marke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s (7th ed)*. NJ: Pearson.

[19] Y. N. Kim. (2002). *A Study on the Donations and Philanthropic Effort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 In Focus of On-line don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hwa Woman University, Seoul.

[20] S. J. Jo. (2006). *An economic analysis on 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 : empirical studies of individual giv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Yeonsei University, Seoul.

[21] H. J. Ha. (2004).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Individual Donation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ju University, Chungbuk.

[22] H. I. Cho. (1991). *A Study on Personal and Organizational Traits Related with Volunteer Activities*

in the Area of Korea Social Welfare. Unpublished Doctoral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23] L. M. Salamon, S. S. Wojciech & H. K. Anheier. (1996). *The emerging sector*.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24]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3.

[25] M. E. Sobel.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26] Y. K. Kim. (2003).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line Donation Behavior to Char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hwa Woman University, Seoul.

[27] D. Y. Lee. (2013). *Influence Factors on Satisfaction with and Participating Attitude in Volunteer Work in Management of Urban Parks : Focused on Seoul Forest' volunte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8] C. S. Lee & H. Y. Jang. (2017). The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and Trust in Charitable Organization on Donation Motive and Attitude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83-89. DOI: 10.14400/JDC.2017.15.4.83

이 창 식(Lee, Chang Seek)

[정회원]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
- 1991년 4월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D.)
- 1993년 2월 ~ 현재 :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교육, 기부
- E-Mail : lee1246@hanmail.net

장 하 영(Jang, Ha Young)

[정회원]



- 2015년 8월 : 청운대학교 응용화학 과(이학석사)
- 2015년 9월 ~ 현재 : 한서대학교 평생교육학과(박사 과정)
- 관심분야 : 다문화, 기부, 평생교육
- E-Mail : besof@hanmail.net